

01. 辨證論治를 운용하여 일반질병과 다발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의 專門醫書가 되었고 한의학 임상 의학의 중요한 기초가 된 책은?

- ① <黃帝內經素問>
② <難經>
③ <傷寒雜病論>
④ <諸病源候論>
⑤ <外臺秘要>

02. 臨床과 脈學理論을 결합한 晉代 醫書 <脈經>의 저자는?

- ① 王叔和 ② 巢元方
③ 孫思邈 ④ 陳無擇
⑤ 陶弘景

03. 다음 중 金元四大家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닌 것은?

- ① 劉完素 ② 張從正
③ 朱震亨 ④ 張仲景
⑤ 李杲

04. 다음 중 醫家에 관한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朱震亨 - 陰有餘陽不足
② 李杲 - 內傷脾胃 百病由生
③ 劉完素 - 六氣皆從火化
④ 張從正 - 汗吐下三法
⑤ 張仲景 - 勤求古訓 博採衆方

05. <瘟疫論>을 지었으며 溫疫의 病源을 ‘非風 非寒 非暑 非濕 乃天地間別有一種異氣所成’라 한 醫家는?

- ① 葉天士
② 吳鞠通
③ 張景岳
④ 王清任
⑤ 吳又可

17. 陰陽 消長平衡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陽 또는 陰 자체의 消長과 陰陽 사이의 盛衰變化 運動이 서로 상대적 평형을 유지한다.
- ② 陽竝于陰 陰并于陽, 陰勝則寒 陽勝則熱 등은 消長平衡 파괴에 의한 병리 상태로 볼 수 있다.
- ③ 消長이라는 용어는 消息에서 비롯한 것으로 陰陽의 盛衰變化를 가리킨다.
- ④ 陰陽 消長運動은 절대적이고 항구적이다.
- ⑤ 陰陽은 항상 함께 消長하며 陰 또는 陽 一方만이 消長하지는 않는다.

18. <素問 六節藏象論>에 나오는 形藏四 神藏五 가운데 밑줄 친 形藏四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耳目 ② 口齒
③ 胸中 ④ 頸項
⑤ 頭角

19. (주관식)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하나의 유기적 ()로 생각한다. 인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아울러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하나의 ()로 생각하여, 자연 규율을 순응하는 전제하에 능동적으로 적응 개발하여 인체의 생리활동을 유지해야 함을 주창한다.

20. (주관식) <素問 六節藏象論>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於心肺 上使五色修明 音聲能彰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乃自生